

2003년 재활용 사업에 3억원 지원

발포스티렌재활용협회, 1-6월 실적 4877톤 ... 지급 대상자 증가할 듯

한국발포스티렌재활용협회(회장 안복현)는 2003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<생산자자율 재활용제도>에 따라 2003년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재활용 사업자에 대해 총 3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.

협회 관계자는 “2003년 상반기 재활용 사업자 56개소에 스티로폼 재활용 실적 4877톤에 대한 지원금 8518만원을 지급했으며, 법 시행 초기였기 때문에 서류 준비 부족으로 신청이 저조했으나 하반기에는 지급 대상자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”고 밝혔다.

한국발포스티렌재활용협회는 2003년 3월 <발포합성수지 재활용사업공제조합>의 인가를 받아 재활용 의무생산자인 전자제품 제조기업 59곳, 음식료품·의약품 제조기업 13곳, 농수축산업 및 유통기업 25곳, 농수축산물상자 제조기업 33곳 등 총 130개 기업을 대신해 재활용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.

이에 따라 폐스티로폼을 회수해 잉고트 등 재생원료를 생산하는 지자체 및 민간 재활용 사업자들과 재활용 위수탁 계약을 맺고 실적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. <조인경 기자>

<Chemical Journal 2003/10/13>